

다산포럼



강진감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장·한국
향토사연구전국연합회 이사장

인공지능 챗GPT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챗GPT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인간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가능하게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마치 사립처럼 이용자와 대화를 이어가며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챗GPT에게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역사는 인간이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건, 사실, 인물, 사회, 문화 등에 대한 기록과 그에 대한 연구를 말 합니다. 즉, 지난 시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하여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입니다."

이 정도 답변이면 역사학자가 보아도 손색이 없고, 문장도 깔끔한 편이다. 더욱이 답변을 하는데 걸린 시간은 정확하게 59초이다.

챗GPT는 40개 이상의 언어로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검색하여 완성된 문장 형태로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의 수준은 높은 편이며, 거의 실시간으로

인공지능 챗GPT로 역사 논문을 쓰다

정보를 제공한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챗GPT는 인공지능 연구 기업인 오픈AI가 개발하여 2022년 12월 세상에 내놓은 '챗GPT-3. 175B'라는 모델이다. 스위스 금융그룹 UBS는 월간 이용자가 1억 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챗GPT로 역사 논문을 작성해 보았다. 고도의 지적 수준을 요구하는 논문을 챗GPT가 작성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이다. 먼저 챗GPT에 '정일전쟁 유적지 콘텐츠 활용 방안 논문 작성'을 요청하였다. 챗GPT는 1분이 걸리지 않는 시간에 1000자 분량의 논문을 작성하였다. 1차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상세한 내용의 답장을 요구하는 여섯 개의 추가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에 챗GPT는 상세한 답변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6179자 분량의 논문이 완성되었다.

지면의 한계로 완성된 논문의 목차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머리말, 2. 유적지 가이드 투어 개발, 3. 대화형 디스플레이 개발, 4.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보완을 위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5. 팟캐스트 프로그램 제작, 6. 가상현실 콘텐츠 활용, 7. 지역과 협력한 유적지 보존 활용, 8. 맺음말"이다. 이 논문은 2023년 2월 17일 개최된 제17차 평택학 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 챗GPT로 작성한 '정일전쟁 논문' 연구' 시문적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챗GPT가 작성한 논문의 완성도는 높았다. 그러나 많은 문제도 나타났다.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에 대해

서는 오답을 많이 하고, 때로는 답변을 못했다. 이는 한 단계 인공지능 기술의 한계로 인한 것이다.

챗GPT에 원사료까지 검색하여 역사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지 질문하였다. "인공지능 모델이 원사료까지 검색해서 답변을 구성하는 것은 아직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연구 개발이 더 진보함에 따라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고 답변하였다. 그래서 역사학자와 인공지능의 관계를 질문하니 챗GPT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인공지능 모델은 언어 이해나 데이터 처리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지만, 인간의 경험과 관점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역사학자는 인공지능 모델이 제공하는 정보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보다 깊이 있는 분석과 해석을 수행하며, 인문학적 가치를 부여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결국,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하며, 역사학자도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보다 깊이 있는 분석과 해석을 수행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챗GPT가 가지는 결정적 한계는 검색 대상인 빅데이터가 가지는 한계이다. 빅데이터는 오류도 많고 편견도 많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해도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검증하는 것은 역사학자의 몫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질문도, 이를 활용하고 검증하는 것도 사람의 몫이다.

김하림의 차이나 4.0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명예교수

류샤오보(劉曉波, 1955~2017)는 201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중국의 인권운동가이자 작가이며 교수였다. 노벨상 수상이 발표되면 당시 그는 수감 중이었다. 노벨평화상위원회는 "류샤오보는 중국의 기본적인 권을 위해 장기간 비폭력 투쟁을 벌였다"고 시상 이유를 밝혔다. 그는 중국 문화와 문화를 전공한 학자로,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시위 당시에는 하와이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조국의 상황을 인지한 그는 즉시 귀국하여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주도했다. 6·4일 무력 진압 이후 그는 체포되어 2년여 감옥 생활 후 출옥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톈안먼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과 보상, 민주와 개혁을 요구하다가 여러 차례 투옥되었다. 2008년 '08헌장' 사건으로 1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나, 본인이나 가족들은 노벨상을 직접 수상하지 못했고 감옥 생활 중 지병이 악화되어 2017년 유명을 달리했다.

왕후닝(王滄寧, 1955-)은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선출되었고, 작년 20차 당대회에서는 상무위원 서열 4위에 올라 올 3월에는 인민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다. 1984년 공안당에 가입한 그는 정치와 행정학을 전

류샤오보와 왕후닝

공한 학자이다. 상하이 푸단(復旦)대학 국제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1995년 공산당 중앙정책연구실 정치조 조장으로 발탁되어 중앙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푸단대학 재직 시 그는 국가의 안정을 중시하면서 강력한 권위주의적 방식과 지도력에 의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지를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이론은 당 지도부의 주목을 받아 1995년 총서기 장쩌민의 추천으로 중앙정책연구실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정치 분석과 정책 입안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는 장쩌민의 '3개 대표론',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 시진핑의 '중국몽', '신형대국관계론' 등과 같은 핵심 정책을 입안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세 개 왕조 황제의 스승'(三朝稱師)라는 명칭을 획득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해에 태어나 비슷한 성장 과정을 거쳤다.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에 대한 열기가 가득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던 1950년대와 60년대 초반의 유년 시절을 거쳐 혼돈의 문화대혁명 시기에 청소년과 청년 시절을 보냈다. 문혁이 종료된 후 대학에 진학하여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학습하고 교직에 몸을 담았다. 중국이 처한 오늘을 고민하고 내일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마음은 같았을 터이나, 현실에서 두 사람의 행로는 정반대가 되었다.

류샤오보는 1991년에 석방된 후 지속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다. 1991년에 다시 반혁명죄로 구속되었고, 공직을 박탈당하고 여러 차례 가택 연구, 체포 구금을 당했다. 그는 '반부패 건의서' '흡혈의 교훈, 민주 추진과 법치 발전' 등과 같은 글을 통해 중국의 민주화와 개혁을 주장했다. 류는 서구 사회의 이두운 면이나 제국주의적 속성을 도의시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았지

만, 2008년에는 일당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08헌장'의 발표를 주도했다. '08헌장'은 '정치적 자유, 사법 독립, 인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수·변호사·작가·연인인·의사·농민·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303명이 참여한 '헌장'은 이후 해외의 화인(華人) 사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서명 운동이 전개되었다. '08헌장'은 톈안먼 민주화운동 20주년을 기념하여 60주년이 되는 해에 발표되어 그 의미를 더하지만, 한편으로는 1998년 광주에서 아시아 인권단체들이 모여 발표한 '아시아 인권헌장'의 맥을 잇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더욱이 그 내용에는 단순한 '진·반' 체제라는 대립 구도를 넘어서는 이상적 모델이 담겨 있기도 한다.

왕후닝은 '행정생태학' '정치적 인생' '미국이 반대하는 미국' 등과 같은 저서에서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행정의 문제를 고민하고, 특히 공권력이 노골적으로 동참하는 '초월적인 거대한 부패' 현상이 전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국가의 정치경제적 명맥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강력한 권위를 통해 해결하고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견해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훗날 역사의 평가는 어떻게 될지 짐작하기 어렵지만, 만약 이 두 사람의 관점과 견해가 서로 상투하여 융합된다면 중국이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한편으로 이 둘의 인생 행로를 보면서 시(時) 고급과 양(洋)의 동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지식인의 역할과 책무란 무엇일까 하는 의문도 여전히 떠오른다.

기고

아버지의 재평가를 통한 '나의 해방'



명혜영
광주시민인문학 대표·문학박사

딸로서, '아버지'라는 세 글자는 거부당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를테면 엄마와는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해 주는 어떤 정서와, 어떤 시각과, 어떤 언어를 통해 청년기의 필자에게도 아버지는 일찌감치 연구 대상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었다.

정지아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사회주의자 빨치산 출신 '아버지'가 '전반대에 머리를 박고' 장렬히(?) 죽었다는 웃픈 상황에서 시작된다. 가족과 친척을 온통 곤경에 빠뜨린 '잡난' 사회주의가 구호에 그치고,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국가에서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를 읽으며 자란 딸은, 결핍하면 아버지의 평생 지킴인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비난의 표적으로 삼았다. 그 화살의 첨단에는 딸과 아버지라는 거리만큼 티 테일하게 처참히 까발려진 인간의 '모순'(=진실)이 유머러스하게 매달려 있어,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공감을 산다.

딸은 사흘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조문 온 생전 아버지의 주변인들을 통해 비춰지는 70년 현대사를 마주하며 아버지를 재평가하게 된다. 소설은 그런 실

존주의자인 딸의 재평가 일지에 의해 '전직 빨치산 아버지'가 주가 아닌 '아버지-사람'으로 자리매김된다. 그리고 유년대로 유골이 산하에 뿌려지며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결말이다. 풀어 말하자면, 딸의 시선으로부터 해방된 아버지는 생전의 아버지와는 다른 새로운 인격의 아버지로 재탄생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소설을 읽으며 나의 아버지는 어떠했었기를 끊임없이 반문했다. 환갑을 코앞에 두고 객사한 나의 아버지. 갑작스런 아버지의 부재를 겪으며 얻게 된 연민의 감정을 지금도 현재진행형. 그러나 가만 생각해보면 아버지에게 대한 이해나 공감, 화해 같은 성찰은 부족하지 않았나? 자문해 본다.

1931년생인 나의 아버지는 농업전문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일찌감치 영특함을 인정받으며 가문을 일으킬 장손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유년기를 보낸 아버지는 나라 잃은 '실용'을 통해 '울분'은 배웠지만, 일본인 개개인에 대해서는 불가해하게도 양가감정을 갖게 되었던 터였다. 그의 의문부호는 오랫동안 미결로 남았다가 이숙고 딸인 필자에게로 전이되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어떤 미션 같은 것이 되어 있었다. 30대 중반에 펼쳐진 딸의 인생은 그런 아버지의 미션을 대리 수행하기 위해, 유폴문 '한일사건'을 풀며 안고 도일(渡日)을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미담은 여기까지. 가족에게 아버지는 나무와 같은 존재로 수직적 관계를 추구하는 전형적인 거부장이었다. 그러나 죽보에 여자 후손들을 등재시키는 등

딸들에게는 휴머니스트로서의 면모도 보였다. 하지만 그 대상이 적대였을 때는 애기가 달랐다. 유학이 곧 지식 가문의 첨대였던 시대의 적자인 아버지는 그야말로 부창부수, 남존여비 사상의 실천자였다.

그 시대의 유교남들은 모두 그러했다는, 아니 2023년 현재도 그러한 남성문화가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동시에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듯 아버지뿐 아니라 아버지 세대의 젠더 감수성 부재는 이해되지도 공감되지도 못한 채 봉인된 상태였다. 아버지의 공금출을 풀 의뢰를, 적어도 60여년의 경험과 인문학을 통해 이 손에 넣었다고 자부하는 지금, 아버지가 부재하다. 그렇게 박제된 30년의 세월을, 정지아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계기로 해제해 보기로 했다.

계묘년 설 명절을 맞아 한자리에 모인 네 명의 자매들과 '아버지'의 추억을 회상,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자 각자가 꺼내 놓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퍼즐 조각을 양산해 내었다. 이미 저 세상 사람인 아버지에 대한 회상의 결은, 자연스레 이해하고 용서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지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렇게 해서 '나'가 아닌 '가문'을 위해 살아야 했던 '장손'의 무게를 이해하고, 유교 문화의 희생자로서의 면모도 재평가되며, '아버지-사람'의 또 다른 버전의 재탄생을 맞이했다.

정지아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주인공 '고아리'나,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 역시, 내 안에 봉인되었던 아버지를 해제해 그와 화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나의 해방'을 꿈꿀 수 있었던 건 아닐까?

社說

5월·특전사 단체 화해 그리 서두를 일인가

일부 5·18단체와 특전사동지회가 5·18 민주화운동 이후 처음으로 국립 5·18민주묘지를 함께 참배하고 대국민 공동 선언까지 했지만 '그들만의 반쪽 화해'에 그쳤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황일봉 5·18부상자회장과 정성국 5·18공로사회장은 특전사동지회 집행부 25명과 함께 그제 오전 9시 50분께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합동 참배했다. 이들은 애초 이날 오후 '공동 선언식' 이후에 참배할 예정이었으나 '사죄와 진상 규명'이 먼저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군사 작전하듯 기습적으로 5·18묘지를 찾았다.

이들은 이후 대국민 선언식이 예정된 5·18기념문화센터로 이동했다. 시민단체들은 이곳에서 '피 묻은 군화발로 5·18을 짓밟지 말라'는 등의 팻말을 들고 행사를 지지하기 위해 경찰 등과 몸싸움을 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포용과 화해'를 주제로 선언식을 강행했다. 이들은 행동강령을 통해 5·18의 숭고한 정신이

계승·발전되도록 서로 적극 협력하고,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기로 했다.

하지만 5·18 3단체 중 유족회는 이번 행사에 불참했다. 이처럼 지역 사회의 공감조차 얻지 못한 상황에서 행사를 밀어붙인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구청장을 지낸 황 회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정치적 명분을 쌓기 위해 무리수만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황 회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5월 단체와 특전사동지회의 교류는 43년 만의 5·18 피해자와 가해자간 화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러나 용서와 화합을 위해서는 가해자들의 진솔한 자기 고백과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5·18 진상 규명 활동이 막바지로 접어들었지만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에 묻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전사동지회가 진상 규명에 힘을 보태 준다면 화해의 길은 절로 열릴 것이다. 5·18단체들도 허심탄회한 소통으로 화합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광주여고생들 4·19 활약 제대로 평가돼야

광주 지역 4·19혁명 당시 광주여고등 학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광주여고 총동창회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광주여고와 함께 엮고제 국가보훈처에 광주여고 11기 졸업생 세 명에 대한 보훈 포상을 신청했다. 대상자는 정찬선(80)·박덕자(83)·양사례(80) 씨로, 이들이 가족들의 피해를 우려해 숨겨오다 명예 회복을 바라는 동문들의 설득으로 60년만에 활동 사실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여학생들의 4·19 참여 사실은 가려져 있어 이들의 증언이 새롭게 주목된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4·19 관련 보훈 포상을 받은 이들은 모두 남학생들이었다. 광주 13명, 조대부고 네 명 등 모두 22명이다. 시위 주도자 가운데 한 명인 정씨는 "2교시 수업이 끝나자 학교 밖에서 '광주여고 나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복도를 뛰어다니면서 종을 치며 운동장으로

나가지고 소리쳤다"면서 "울타리를 부수고 광주고 남학생들과 합세해 본격적인 데모에 나섰고 최후탄과 돌 등을 던지는 경찰에 맞섰다"고 증언했다.

이들의 활동은 광주일보가 1960년 4월 24일 보도한 ' 시내 학생 거의 합세, 광여고·공고·부고·상고'라는 제목의 기사에 뒷받침한다. 이들의 증언을 통해 광주여고의 시위 참가 인원이 애초 알려진 200여 명이 아니라 700여 명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4·19혁명은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체성과 국가적 지향점을 확립한 역사적 사건이다. 잊혀져 가고 있지만 아직도 4월 혁명의 진상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정부는 광주 4·19의 주역인 광주여고생의 혁명 참여 사실을 제대로 평가하고 업적을 기려야 한다. 보훈처는 한 발 더 나아가 시위 참여 생존자들을 발굴하고 구술을 채록하는 등 역사 재조명 사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터키 지진 이후에도 여러분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니다."

튀르키예 데니즐리에 사는 아홉 살 소년 후세인 칸간이 최근 유엔 기념공원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한글 인사를 보냈다. 앞서 지진 피해 지역인 안타리아 주민 엠레 씨는 한국 해외인 급구조대(KDRT) 숙영지 텐트를 한글로 도박도박 '형제 나라, 고마워 형'이라고 썼다. 생존자 여덟 명을 구하고 시신 19구를 수습하는 구조 활동을 마

을 잃은 고아들을 챙겼던 튀르키예에 연대와 위로를 전했다. 그림의 모티브가 된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 군인 솔레이만 하사와 다섯 살 한국 소녀 '아일라'(김은자 씨)의 실화는 한국·튀르키예 합작 영화 '아일라'(Ayla·감독 잔 줄카이)로 만들어져 2018년 개봉했다.

튀르키예 한글 인사

구호대에 고마움을 표하는 현지인의 감사 인사였

다. 귀국길에 오든 긴급구조대원들은 기내에서 튀르키예인들의 "당신들이 흘린 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한국어 감사 인사 영상을 접하고 눈시울을 붉혔다.

명민호(30) 일러스트레이터는 한국전쟁 당시 한국 소녀에게 초콜릿을 건네는 튀르키예 군인 모습과 지진 현장에서 튀르키예 소녀에게 물을 건네는 한국 긴급구조대의 모습을 대비시킨 그림을 그렸다. 그는 그림을 통해 70여 년 전 한국전쟁 때 대규모 전투 병력을 지원하고 가족

보냈다. 독일 신경과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요아힘 바우어는 "공감하는 유폴문"에서 "인간이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의미 지향적이고 사회 진화적인 삶을 살도록 정해져 있다"면서 "공공심을 키우며 타인을 자발적으로 돕는 사람들은 비단 타인에게만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좋은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한다. 한글로 또는 한국어로 진심으로 튀르키예인들이 강진이 남긴 상실감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기를 응원한다. /송기동 예방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